

# 젊고 새로워진 '전주독서대전'

### 13~15일 한벽문화관 일원서 '다시 질문 곁으로' 주제 개최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2023 전주독서대전'이 한층 젊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주시민과 독서여행자들을 맞이한다.

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한벽문화관과 완관본문화관 일원에서 '2023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한다.

'다시, 질문 곁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전주독서대전에는 전주독서생태계를 구성하는 10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지난해보다 확대된 118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책을 통한 소통을 기다려온 전주시민들과 전국의 독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축제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지역 청년 단체와 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MZ세대의 독서 욕구를 반영한 '젊은 축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낡은 사과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사유의 문을 열어갈 '질문'이라는 단어로부터 축제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또한, 시는 독서체험부스가 운영되는 완관본문화관 일대를 그린존으로 설정하고, 대화용컵 대여 부스 운영과 행사 후 폐현수막 재활용 등 친환경 축제를 기획해 지속 가능한 가



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한벽문화관과 완관본문화관 일원에서 '2023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한다. (지난 전주독서대전 개최 모습)

치를 추구하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QR코드를 활용한 양방향 강연 △SNS를 통한 사전 질문으로 진행되는 독서토론 △어플을 활용해 행사장 곳곳의 퀴즈를 풀어나가는 스탬프투어 등 기존보다 디지털 소통방식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부스 체험 행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올해 독서대전의 서막을 여는 개

막식에서는 개막공연 '톡톡, 질문을 두드려라'를 만날 수 있다. 이 공연은 2023전주독서대전의 주제인 '질문'을 소재로 만든 연극으로, 라디오 공개방송을 통해 인간사 애환을 풀어내는 갖가지 사연들에 알맞은 책을 처방해 주는 파스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작가 책으로 묻다' 강연 프로그램에는 물리학자 김상욱 작가, 신형철 문학평론가, 최진영 소

설가, 논픽션 작가 김희경 작가 등 MZ세대들이 주목하는 강연자들이 대거 초청됐다. 또, '전주가 주목한 작가'로는 안도 시인과 정운희 작가 등이 각각 강연을 맡는다.

여기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낭독공연 △마당창극 △뮤지컬 등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경연대회로는 △가죽 독서 끝판왕 △어린이 독후 활동 대회 등이 펼쳐진다.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요리사와 함께 세상에 없는 책 속 맛을 체험하는 '물음표 식탁' △헌책을 마음껏 담아갈 수 있는 북북북 게임 '책 답았소?' 등이 전주 시민과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전주독서대전 책탈출 프로그램 △북마켓 이용자와 게임 참여자가 함께 하는 #인생네트 등 다수의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첫 선을 보이며, 북마켓과 17개의 독서단체에서 준비한 체험부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시는 올해 전주독서대전을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온 세대와 소통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를 만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취업준비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 전주시, 10~24일 신청 접수

전주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반기에도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취업준비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취업준비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청년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구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을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어학시험을 응시한 청년으로, 토익(TOEIC)과 토플(TOEFL) 등 어학시험(19종) 응시자에 대해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응시료의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상반기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1983년생~2004년생)으로, 시험응시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전주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youth.jeon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주민등록초본 △어학시험 응시확인서 △어학시험 결제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신청자가 업로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오는 11월 말 하반기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라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구직 청년들이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단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남녀노소 즐기는 문화 '가득'

###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하반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가 어린이와 청소년 등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운영된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에서 풍성한 하반기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내 어린이 창작공간 '모야'에서는 하반기 창작프로그램으로 △'펠러비즈 키링 만들기' (7일) △나만의 비누를 만들어 보는 '하리보 천연비누 만들기' (14일) △아로마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핸드크림 만들기' (12월 23일)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는 인문학 특강 시리즈도 운영한다. 10월에는 박준 시인이 초청돼 '읽는다고 달리는 일은 없겠지만'이라는 주제로 △일상이 어떻게 시와 문학으로 변화하는가 △글을 쓴다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영향을 주는가 등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열린다. 10월에는 이성원 작가의 '보통 엄마를 위한 기억의 영어육아'를 주제로 한

부모교육이 진행되고, 11월에는 이임숙 작가의 '신기하게 아이가 달라지는 엄마의 말공부'를 주제로 한 교육이 예정돼 있다.

그림책에 관련된 강연과 체험 행사도 올 연말까지 6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전주국제그림책도시전 개최를 계기로 그림책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어떤 그림책을 읽어줄까? △누에의 한 살이 이야기 △아이와 행복의 추억을 만드는 즐거운 그림책 육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그림책 작가인 권혁도 작가는 곤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실제 곤충을 살펴볼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최항달 작가는 자연 속 재료를 가지고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과 아이들이 직접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숲속 재봉사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의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세대를 위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지속 운영방안 모색

###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회 개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시설들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보고회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주최로 열렸다.

5일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로컬라이징연구회(회장 최서연 의원)는 '전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회'를 전주사회혁신센터 1층에서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거점시설을 매년 조성하고 있지만, 사업 후 지속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연구용역 후 마련됐다. 용역을 맡은 정수경 즐거운 도시연



5일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로컬라이징연구회는 '전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회'를 전주사회혁신센터 1층에서 열었다.

구소 대표는 결과 보고에서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및 거점시설에 대한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 선진 사례를 설명하

며, 주민들의 욕구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과 전주시 도시거점시설만의 통합 브랜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박장선 서울 성동구청 구정기획단 구정정책 전문관은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 사례로 손꼽히는 성동구의 도시재생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이어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류영관 동근순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허갑수 전주시 도시정비과장은 지정도론자로 나서 전주시 도시재생거점시설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로컬라이징연구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세혁 의원은 "이번 연구결과와 토론을 참고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산된 거점시설들이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로컬라이징연구회 회장 최서연 의원은 "도시의 거점시설과 같은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전주의 오래된 곳곳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콘텐츠를 연구하고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 남원에서의 가을밤 추억 여행

# 제31회 남원 흥부제 통기타 라이브

**10월 8일(일) 오후 8시 ~ 9시**

**남원 사랑의 광장 무대(남원시 어연동 37-19)**

**출연진**

  
국민MC 서정우

  
이태원

  
최형준

  
김민영

  
이창휘

**주최 :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